

익산 백제단길 소상공인-예술단체-판소리 명창의

코로나 극복 '콜라보'

백제상점가 상인회 송형규 회장
'예술이 꽃피우다' 윤미 대표
조통달 판소리 명창 등 협약



백제상점가상인회, 사회적 기업 '예술이 꽃피우다', 조통달 판소리 명창 등 익산 영등동 백제단길 사람들이 최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익산 영등동 백제단길의 소상공인들과 예술단체, 판소리의 명창 조통달 선생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백제상점가상인회 송형규 회장, 김정범 추진위원장은 사회적 기업 '예술이 꽃피우다'의 윤미 대표, 조통달 판소리 명창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완공한 '백제단길 문화쉼터(너나들이 문화쉼터)' 공간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상인회와 문화 예술인들의 콜라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익산시는 백제상점가상인회와 함께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백제단길 문화쉼터' 조성을 시작으로 5월부터 6월 하순까지는 조형물 설치와 거리 경관조명을 준비 중이다.

또한 바닥에는 컬러를 점복해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한 장소 디렉팅을 준비하며 시민대학과 상인대학 중심으로 문화·외식 편의를 위한 발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리 프리마켓과 블록 파티로 여러 재능자와 협업을 준비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백제 상점가 상인회 송형규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행복한 외식거리를 조성하고자 소상공인들과 문화인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협업을 희망하여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으뜸 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중국의 대중서사 트렌드 분석

전주대 왕남 교수, '21세기 중국의 대중서사 읽기' 출간

현 대중서사의 전통문화 차용·계승 초점, 문화 트렌드 소개

전주대학교 왕남 교수(중국어중국학과·사진)가 저서 '21세기 중국의 대중서사 읽기(역락)'를 출간했다.



왕 교수는 이번 저서를 통해 인터넷 글쓰기, 애니메이션, 웹 드라마 등의 다양한 장르로 제작된 중국의 대중서사를 상세히 분석해 소개했다. 특히, 중국 전통문화의 차용과 계승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이런 요소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골라 이를 소개함으로써 중국의 문화 트렌드와 전통문화를 공유하고자 했다.

저서에는 최근 흥행하거나 호평을 받았던 영화나 애니메이션 가운데는 중국 고대의 전통서사인 '산해경(山海經)', '서유기(西遊記)', 장자(莊子)의 우언(寓言) 등에서 소재와 사상을 차용해 온 것들이 많다.

특히 왕 교수는 이런 흐름에 맞춰 대중들이 관심 갖고 좋아하는 21세기 대중서사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 간의 이미지, 시공간, 철학적 요소 등을 분석함으로써 누구나 알기 쉽게 중국 문화 트렌드와 전통문화를 묘사했다.



'21세기 중국의 대중서사 읽기' 책 표지

한편, 왕남 교수는 중국 대련이공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 취득 후 연세대 중국중문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2008년부터 전주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음악의 미래 인재 찾습니다'

전북음악아카데미, 27일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북음악아카데미(센터장 백희영)에서는 음악에 재능 있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북음악아카데미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복대가 운영하는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 3월 설립됐다.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분야에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육회관등대상자 학생을 모집 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음악교육을 받지 못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신입생 선발은 4월 27일부터 5월 7일 오후 4시까지 전북음악아카데미 이메일(musicgifted@jnu.ac.kr)로 접수한 후 5월 9일부터 전형형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음악아카데미 블로그(<https://blog.naver.com/musicgifted>)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63-219-5228)



선발된 학생들은 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력 위주의 음악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한다는 교육원 설립 목적에 따라 무료로 수업을 받게 된다.

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 내에서 실시된다.

수업은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등 국내 저명 교수 및 전문 강사로부터 실기능력, 창의력 및 예술성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적이면서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기공연을 개최, 실제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예비 음악가로서 관중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들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분야별 주임교수는 피아노 분야에 백희영 교수, 성악 분야 김선옥·이은희 교수, 관현악 분야 김지환·이현웅 교수, 작곡 분야에 신혁진 교수로 전북대 음악과 소속 교원이 겸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문화원 초대 원장 '정방폭포와 돌하루방', 제주에서 익산으로

익산출신 제주한림호텔 회장

故 이인호 작가 작품 고향에 기증

익산문화원 초대 원장이었던 인도(尹麟) 이인호(李仁鎬, 1935~2012) 작가의 '정방폭포와 돌하루방' 작품이 4월 20일 제주도에서 익산으로 돌아왔다.

이 작품은 달마도 단청과 탕화 등에 탁월했던 문화재 화공 164호인 (고)이인호 작가가 1993년에 그린 가로 4.2m, 세로 1.2m의 한국화로 그동안 제주시 한림호텔 로비에 전시되어 있었다.

익산시 미동 출신인 이찬용 한림호텔 회장이 최근 호텔 리모델링을 하면서 작가의 고향인 익산으로 작품을 보내기로 해 익산문화원과 협의를 통해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찬용 회장은 본 작품을 떠나보내면서 "문화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다하신 인도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맺힌다면서 이제



는 고향 익산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모든 시민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초대 원장님의 작품을 30만 익산시민들의 품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익산문화원이 전통문화창달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익산문화원과 제주도 전북도민회는 지

난 1992년 5월 5일 자매결연을 한 이래 꾸준히 문화교류를 하고 있으며, 기증된 작품은 익산 문화원 신축별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소설 '퇴마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1990년대 큰 인기를 끈 소설 '퇴마록'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싸이더스애니메이션은 21일 소설 퇴마록의 애니메이션 제작 확정 발표를 했다. 싸이더스 애니메이션은 원작 소설 퇴마록의 방대한 이야기와 세계관을 장기간에 걸쳐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첫 시즌은 많은 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국내편을 주요 스토리로 했다. 주인공들이 앞으로 펼칠 이야기의 기원을 주로 다루게 될 예정이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